

정극인 한시의 미학

유육례*

<차례>	
1. 서론	
2. 한시 속에 드러난 관계의 미학	
2.1 훈계의 시	
2.2 송별의 시	
2.3 어울림의 시	
2.4 그리움의 시	
2.5 감격의 시	
3. 결론	

1. 서론

정극인은 1401년에 출생하여 1481년에 타계하였다. 그는 15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관향은 靈光 곧 靈城이고, 자는 可宅, 자호는 不憂軒 또는 다현 다작이라는 별호가 있다. 영광정씨는 그 뿌리의 근원을 중국에 두고 있다. 정극인에 대한 행적의 기록은 그의 문집인 『不憂軒集』에 전하고 있지

* 전남대학교

만, 아직도 그의 생애와 철학, 그리고 시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극히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극인은 한국의 고전문학사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가 남긴 〈賞春曲〉을 비롯하여 〈不憂軒曲〉, 〈不憂軒歌〉 등을 창작하여 현재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극인의 국문시가에 대한 업적은 대단하다. 국문시가인 〈상춘곡〉은 가사의 효시 작품으로 그 위상이나 가치가 어떤 작품보다도 중요하다. 국문시가 이외에 많은 한시문은 그의 문집인 『불우현집』에 전하고 있다.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현집』에 전하고 있는 한시문은 운문인 한시가 약 57 편 실려 있고 대체로 절구와 율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수로 보아서는 그가 남긴 작품이 50-60편으로 소략인 점은 그가 창작한 작품이 모두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극인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들은 아직까지 연구한 자가 없었다. 필자는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현집』에 실린 한시 중에서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贈詩’를 대상으로 연구¹⁾한 적 있었다. 이번에는 정극인의 한시에 나타난 그의 예술적 재능이 어떻게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시 속에 드러난 관계의 미학

미학²⁾은 현실적 심미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주위 현실에서 일어나는 관계로서 “일종의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 나에게 관계하는 것으

1) 유육례, 「丁克仁의 贈詩 研究」, 『古詩歌研究』,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2) ‘Asthetik’은 독일 문학가인 바움가르텐이 처음 쓴 용어이다. 처음에는 그리스어인 aisthanes-thai에서 Aesthetica라는 용어를 유추해 내 이를 감성학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이 후에 Asthetik으로 변했다.

혜겔, 두행숙옮김, 『혜겔미학』 I, 나남출판, 2001, 25쪽.

로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은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동물은 그 어느 사물에 대한 관계로 맺지 않는다.”³⁾라고 맑스 엥겔스는 그의 예술론에서 말했다.

헤겔은 그의 저서 『헤겔 미학』에서 미에는 예술미와 자연미가 있는데 예술미는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미이기 때문에 정신과 정신물의 산물이다.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은 예술미이다.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것, 즉 모든 것을 자신 속에 포괄하는 것이므로, 미는 그 자체가 보다 숭고한 것에 참여하고 숭고함을 통해 생겨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진실한 것은 예술이 인간 행위의 소산으로 예술창조의 규칙을 알아내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행위를 하여 예술작품을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멘델스존도 미를 정의했는데, “예술이란 막연한 감정에 의해 인식된 미를 진과 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 예술의 목적은 도덕적 완성”⁵⁾으로 보고 있다.

정극인의 시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적인 예술행위로까지 확대되어 가장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는 시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심사를 내용과 풍부한 사상과 도덕적 완성으로 표현했다. 그의 시는 삶과 경험 그리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심오하게 드러내었다. 정극인은 나이가 든 후에 썼던 시에서는 더욱더 심오하고 진실한 언어가 한층 돋보인다.

2.1 훈계의 시

정극인은 훈계를 통해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고자 했다. 정극인은 일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자, 향촌의 지도자, 시인으로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면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훈계와, 교훈이라는 말은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人倫有五	인륜 다섯 가지 가운데
朋友居一	붕우가 그 하나라네
並生斯世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號口難得	얻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
矧同一鄉	더구나 같은 고을에서
從遊朝夕	조석으로 따라 노닐어라
以友輔仁	벗으로써 인을 도울을
是謂三益	곧 유익한 세 벗이라 하네
作契誠信	정성과 믿음으로 계를 이루니
猶膠與漆	끈끈한 정이 교칠과 같다네
吉慶必賀	경사엔 반드시 하례하고
憂患心恤	우환엔 반드시 규휼하네
回路管鮑	안회와 자로 관중과 포숙이
輝映簡策	책에 빛나는 이름을 남겼듯이
山礪海帶	산이 닳고 바다 물이 마르도록
終始不忒	시종 변하지 말아야 하리
凡我同盟	우리 모든 계원은
最宜矜式	마땅히 공경하고 본받아야하리
言不盡意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하여
重爲之約	거듭 약조를 하네
挾富挾貴	자신의 부귀함을 믿고
背憎面悅	뒤에서는 미워하고 면전에서 기뻐하라
多般巧詐	고모하게 속이는 많은 행위들
不恤其德	그 덕을 돌아보지 않음이니
豈日誠信	어찌 정성과 믿음일까
神明其殛	신명이 벌하리라
豈日誠信	어찌 정성과 믿음일까
罪當黜伏	죄가 있으면 마땅히 축출당하리

〈泰仁鄉約契軸〉

3) 맑스 엥겔스, 『예술론』.

4) 헤겔, 두행숙옮김, 『헤겔미학』 I, 나남출판, 2001, 28~29쪽.

5) 톨스토이, 이철욱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2005, 36쪽.

정극인은 명성에 비해 벼슬이 높지 않았으며, 벼슬보다는 자연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정극인의 향촌지도자로서의 삶을 대변한 일이 고현동 주민의 교화와 친목을 위해 만들었던 일종의 향약인 <洞中鄉飲酒禮>⁶⁾이다. 정극인은 정언에서 물리나 고현동에 거주하는 촌로로서 향약이 실시되자 이를 축하하는 뜻에서 이 시문을 썼던 것이다. 또한 훈계의 시로 <泰仁鄉約契軸>을 지었다. <泰仁鄉約契軸>은 정극인이 정언에서 물리나 고현동에 거주하는 촌로로서 향약이 실시되자 이를 축하하는 뜻에서 이 시문을 썼던 것이다.

오륜은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綱領과 5가지의 人倫을 말한다. 이는 「맹자」에 나오는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의 5가지를 말한다. 정극인이 살았던 조선조에는 삼강오륜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시대이다. 오륜 중에서 봉우를 먼저 말하면서 관중과 포숙의 예를 들어 변치 않는 우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공자의 말씀중에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오 其不善者而改之’라는 글이 있는데, 이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정극인은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으며,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또한 친구는 산이 닳고 물이 마르도록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계원은 마땅히 공경하고 본받아야 하며 말로는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거듭 약조를 한다면서 정성과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서화훈완리>인데 이 시는 교화를 베풀어 못된 아전을 가르치려는 시이다. 정극인은 일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자, 향촌의

지도자로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면 그는 훈계와 교훈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다.

尙德綴刑雖古法	덕을 높이고 형을 늦춤이 비록 옛 법이나
觀民設教亦隨時	백성을 살피고 가르침을 베풀기에 또한 때를 따라야 하네
其刑其罰須加等	형과 벌을 한 등급 더해야만 하고
惟德惟威並用之	덕과 위엄을 아울러 써야 하리라

<叙化訓頑吏>

지도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쉽지 않은 자리일 것이다. 정극인은 관리들이 백성을 살피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때에 따라서해야 한다고 한다. 형과 벌로써도 다스리지만 아울러 덕과 위엄을 병행해서 다스림이 참된 관리로서의 일로 본 것이다.

정극인은 병진년(1436, 태종18)에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유랑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세종은 왕의 특명으로 태조 때 창건한 흥천사를 중건하도록 하여 내창고의 금, 주옥, 비단, 그릇, 수저 등을 만들어서 흥천사에 하사함이 매우 많았다. 또 당시 행호라는 승려가 세종의 총애를 얻어 흥천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종척과 여염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도성 안에서 安居會를 개설하여 1년 동안에 도첩을 받고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된 이들만 수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정극인은 지손에게 경계의 글로 <지손계>와 <학령>을 썼는데 이 글은 모두 지손을 덕과 위엄으로 이끌며 인륜의 근본을 가리켜 보이고 국가의 선법을 참조하여 따라 움직이게 하도록 간곡히 말했다.

학문의 공효는 크다. 천자가 배우지 않으면 사해를 보존할 수 없고, 제후가 배우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할 수 없고, 경태부가 배우지 않으면 그 집

6) 향약의 근원은 북송의 呂氏 형제들이 만들었던 呂氏鄉約이 처음이고, 그후 남송의 朱子가 ‘增損呂氏鄉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고려말에 유입 전파되어 향촌교화의 역할을 하였다. 이 향약이 정극인이 거주했던 고현동에서 실현된 시기는 성종6년(1475)으로 전한다. 정극인은 이 향약 실행을 축하하는 뜻에서 <洞中鄉飲酒禮>를 썼다.

을 보존할 수 없고, 사서인(士庶人)이 배우지 않으면 그 몸을 보존할 수 없으니, 옛 성현을 살펴보건대 학문을 통하여 나가지 않음이 없었다. 왕형공(王荊公 왕안석(王安石))의 권학시에 좋은 말이 있으니,

只見讀書榮 다만 독서 후 영화만을 볼 것이고
不見讀書辱 독서의 욕된 결과는 보지 않으리라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본조의 제도에 수고롭고 욕된 직임으로서의 향리만한 것이 없다. 우리 집안은 본디 영광의 향족인데, 우리 시조 휘 진(璿) 생원공이 향역을 면제받는 공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아마 방립(方笠)을 쓰고서 구부리고 엎드려 지내는 수고로움과 욕됨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내가 다행히 보잘것없는 바탕으로 우연히 사마시에 급제하여 20여 년 동안 성균관에서 음식을 축내었으나 운명이 어긋남이 많아 과거에 누차 떨어지고 골목에 돌아와 누워지내면서 이렇게 중신토록 지낼 것처럼 한 지가 여러 해였다. 그런데 신미년(1451, 문종1) 겨울 문종조에 그릇되게 재능과 학식이 모두 정밀하다는 이름을 입어서 성균관에서 물망에 올리고 예조에서 천거하여 특별히 종사랑 수 광홍창부승에 임명되었으니, 이 또한 옛것을 살핀 학문의 힘이었고 근고에 일찍이 없었던 성대한 일이었다.

너희들은 나이가 모두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으니, 이 때에 미쳐서 학문에 힘써서 초영을 개발한다면 공경과 장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 미쳐서 안일하고 태만하여 타고난 본심을 거칠게 한다면 이는 스스로 욕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 너희들은 이 점을 생각하여 '미쳐서[及],라고 하는 말을 상세히 음미함이 좋을 것이다.

『小學』에서 여 사인(呂舍人)이 말하기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스승의 공이고, 행함에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조용히 타이르고 경계하는 것은 봉우의 임무이니, 뜻을 결단하여 나가는 것인즉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야지 타인에게 바라기 어렵다.”고 했다. 아, 너희들은 이 점을 생각하여 '나간다[往]'은 말을 상세히 음미함이 좋을 것이다.

아, 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리석게 귀를 막는 사람은 누구인가. 7) <자손에 대한 경계>

상세학문의 공효는 크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보존할 수 없다고 하고, 옛 성현들은 학문을 통하여 나아간 사실을 말하였다. 왕형공 왕안석의 권학시를 예로 들면서 “只見讀書榮 不見讀書辱 只見讀書榮” 영화라는 것은 독서만으로 본다는 것인데 독서후에는 독서의 욕된 결과는 보지 않으리라 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본디 영광의 향족으로 시조인 휘 진(璿) 생원공이 향역을 면제받는 공으로 구부리고 엎드려 지내는 수고로움과 욕됨을 겪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정극인이 사마시에 급제한 후 예조에 천거되어 특별히 종사랑 수 광홍창부승에 임명된 것이 또한 옛것을 살핀 학문의 힘이었다고 쓰고 있다.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20세도 안되었으니, 이 때에 학문에 미쳐서 초영을 개발한다면 공경과 장상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만약에 안일하고 태만하여 타고난 본심을 거칠게 한다면 이는 스스로 욕되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及,'이란 말을 상세히 음미하도록 한다.

『小學』에서 呂舍人이 말하기를 “뜻을 결단하여 나가는 것인즉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야지 타인에게 바라기 어렵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往”는 말을 상세히 음미하라고 경계하였다.

7) 국역, 『불우현집』.

<子孫誡>

學問之功 大矣 天子不學 不能保四海 諸侯不學 不能保社稷 卿大夫不學 不能保其家 士庶人不學 不能保其身 稽古聖賢 莫不從這裏過 善乎王荊公勸學之詩曰 只見讀書榮 不見讀書辱 謹按 本朝之制 職任之勞且辱 莫鄉吏若也 家勢本靈光鄉族 微吾始祖諱 生員免鄉之功 則吾其爲方笠俯伏之勞且辱矣 余幸以無似 偶中司馬試 二十餘年適食芹官 命途多 屢屈科第 退臥空谷 若將終身者有年矣 幸未冬 文宗朝誤被才學俱精之名 成均望之禮曹薦之 特拜從仕郎 守廣興倉副丞 斯亦稽古之力 而近古未有之盛事也 若等年皆未冠 及是時 強勉學問 開發聰明 則公卿將相 寧有種乎 及是時逸 逸豫怠惰 茅塞良心 則是自求辱也 嗚呼 若等其思之 詳味及字可也 呂舍人曰 指指引者 師之功也 行有不至 從容規戒者 朋友之任也 決意而往 則須用己力 難仰他人矣 嗚呼 若等其思之 詳味往字可也 嗚呼 聽用我謨者誰歟 哀如充耳者誰歟

2.2 송별의 시

만남이 있으면 이별의 아쉬움도 정해진 위치이다. 이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별을 원하지 않아도 이별을 다가오는데 정극인은 이별의 아쉬움을 시로 읊고 있다.

離家近朞月	집을 떠난지 근 일 년
魂夢長不散	길이 혼몽을 그칠 수 없네
安得南州守	어찌하면 남주의 수령이 되어
能令妻子悅	능히 처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次辛參判〉

이 시는 참판 辛碩祖에게 차운한 시이다. 신석조의 본관은 영산이다. 이름은 石堅이다. 병오년(1426, 세종8)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같은 해에 병과 7인으로 급제하여 문예로써 드러났다. 관직은 자헌대부 제학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僖이고, 호는 淵水堂이다.

살아온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집을 떠난지 일년이 되었고 길이 혼몽을 그칠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수령이 되어서 처자를 기쁘게 해줄까 하는 생각뿐이다. 관리로서 수령이 된다면 나라의 임무수행하기도 비뻔텐데, 처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것으로 보면 이별이 가족을 그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쉬운 이별은 그리움을 남기게 된다. 이별했던 그리운 사람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해서 열어보았을 때 기쁨과 위로의 심정이 교차되고 있다.

戀極開看一尺書	지극히 그림고 나머지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보니
合門欣慰問何如	온 집안 기쁨과 위로의 심정 어떠하랴
臨流鱸鱖非無望	흐르는 물가에서 술 마시고 읊조림을 바라 마지않으

나

只迫田家始荷鋤 다만 농사짓는 집 형편에 비로소 호미 베고 나가네
 〈寄金花軒楸山〉

이 시는 처음 정극인과 화산 김추산에게 부친 시이다. 김추산에게 이별하고 나서 그리움을 짓게 드리고 있다. 반가운 편지 한통이 배달되어서 편지를 열어보니 온집안의 식구와 기쁨과 위로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 시골의 흐르는 물가에서 함께 술 마시고 시를 지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다.

金闕初辭出鳳城	대궐에서 처음 하직하고 서울을 나서니
親親歸路馬蹄輕	부모님 뵈러 돌아가는 길에 말발굽 가볍구나
辟除聲裏江山動	벽제 소리 가운데 강산이 진동하고
戴玉頭邊白日明	옥관자 쓴 머리에는 흰 해가 밝았구나
驛吏時時迎敬貌	역참의 아전들 그때 그때 공경히 맞이하고
聖恩承仰知多少	성은을 받은 이 얼마나 많았던가
爭似薇郎得此榮	미랑이 ⁸⁾ 이런 영광을 얻은 것만 못하리

〈送曹正言歸觀〉

이 시는 정언 曹尙治가 부모를 뵈러 가는 행차를 전송한 시이다. 조상치는 생원으로서 기해년(1419, 세종1)에 을과에 급제했으며, 관직은 집현전 부제학이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있던 조상치가 대궐에서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그가 부모를 뵈러가는 것을 보고 정극인이 지은 시이다.

2.3 어울림의 시

미는 예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랑 속에도 존재하기

8) 미랑은 자미랑(紫薇郎)의 준말이다. 원래는 중국의 관제에 있어서 중서(中書省) 속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여기서는 사간원 정언인 조상치(曹尙治)를 말한다. 薇垣이 사간원의 별칭이어서 이를 일컫는 말이다.

때문에, 진정한 미는 예술과 자연 그리고 사랑이 조화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으로⁹⁾ 술레겔은 말하였다. 정극인의 시에서는 동료들과 사랑으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다.

茶時善戲如壘篲	다시의 좋은 놀이 형제간 같고
內房嚴整以安禪	내방이 엄정하긴 참선에 든 것과 흡사하네
二十四賢皆我師	이십사 현인이 모두 나의 스승이니
凡居官府常周族	관부에 지내매 항상 주선하네
分司馬頭道如砥	마두를 나누어 맡으니 길이 솟돌처럼 평평하고
傳心杯面酒如泉	술잔에 마음을 전하니 술이 샘처럼 많네
芝蘭之臭有誰知	지란의 향취를 누가 알 것이며
金石之通有誰傳	금석을 통할 마음 누가 전하랴
古來盟好勤於斯	예로부터 좋은 정이 여기에서 부지런하니
俾爾子孫毋忘旃	너의 자손들에게 잊지 말게 할지어다

〈驄馬契軸〉

〈총마계축〉은 정극인이 사헌부 감찰로 있었을 때 감찰 동료들과 지내면서 쓴 시이다. 동료들은 25명이었고, 지평이상 대사헌 이하에 인원이 미비함이 있거나 아직 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잠시 물러나서 차를 마시면서 요기한다’고 청했다. 그러므로 감찰이 ‘茶時’라는 두 글자로써 入啓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관원 가운데 지위가 높고 벼슬한 지 오래된 이를 ‘房主’라고 일컫고 먼저 이를 사람을 모두 선생으로 삼아, 팔도의 이름고 해로움과 근면하고 태만함을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지평 이상이 論啓하는데 자료로 제 공하였다.

우리네 性情은 유달리 동류의식이 강한 민족이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관례적인 관습에서 우러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의해 일상적인 일들이 좌우되는 걸 보면 우리는 합리나

9) 톨스토이, 이철 옮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2005, 43쪽.

논리보다 감정이나 정의에 지나치게 충실한 결과일 것이다. 유독 같은 혈족, 같은 집안, 같은 마을과 고장 등 同類의식은 다른 합리성을 알지른다. 이는 아마도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보다는 동질적인 것들의 어울림이 훨씬 자연스럽고 정감이 있다고 보고¹⁰⁾ 있는데 정극인은 조화와 동료들의 어울림으로 자연스럽게 정감을 나누고 있다고 보여진다.

芝蘭之交는 『명심보감』 〈交友〉 편에 나오는데 지초와 난초의 사귀를 뜻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¹¹⁾ 지란지교¹²⁾ 지란지교는 여기서 유래한 성어이다. 공자의 말처럼 벗을 사귄 때는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롭고 맑은 사귀를 가지라는 뜻인데 정극인도 같은 생각이다. 이와 같이 벗 사이의 변치 않는 사귀, 두터운 사귀를 함으로써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미원은 조선조 사간원의 별칭이다. 이 시는 칠언율시의 형식이다. 미원계회도는 기축년(1469, 예종1) 8월에 정극인이 태인현 훈도로 있었는데 특명으로 사간원 헌납에 임명된 후 당시에 유일하게 사간원 정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서울에 들어가 〈미원계회도〉를 짓고 또 불교를 배척하여 옥에

10) 전일환, 「고산 윤선도의 수사미학」, 『古詩歌研究』11輯, 한국고시기문학회, 2003, 14쪽.
 11)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即與之化矣 與不善人居 如入鮑魚之肆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 丹之所藏者赤 漆之所藏者黑 是以 君子必慎其所與處者焉. 『明心寶鑑』
 12) 벗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가리치는 한자 성어로는 管鮑之交, 膠漆之交, 金蘭之契, 金蘭之交, 金石之交, 金石之契, 斷金之契, 斷金之交, 莫逆之友, 勿頸之交, 伯牙絕絃, 知音, 水魚之交, 竹馬之友, 竹馬故友 등이다.

간헐했다가 오래지 않아 풀려났다.

古來西掖着詞臣	예부터 궁궐의 서쪽은 문신이 있는 곳
骨肉斯文分義均	우리 계원들 정분은 형제나 다름없다오
封事秦回丹鳳晚	봉사를 아뢰느라 대궐에서 늦게 돌아오오
哦詩醉罷紫薇春	시를 읊으며 사간원의 봄에 취하네
矢心只爲報明主	마음에 다짐함은 다만 명철한 임금께 보답할 일
翻手何曾負故人	손을 뒤집듯 어찌 벗을 저버릴 것인가
努力諸君全晚節	그대들 힘써 만절을 보전할지니
尋思榮落總微塵	생각하건대 영광은 모두 작은 티끌일세

〈薇垣契會圖〉¹³⁾

정극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행호라는 승려가 흥천사의 주지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문란하게 한 죄이다. 행호의 만행을 정극인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당시 여러 태학생들과 뜻을 모아 〈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올려서 임금이 노하여 옥에 갇혔었다. 당시 영의정 黃喜가 “정극인을 죽이면 史記는 무어라고 쓰겠습니까”고 아뢰어 임금의 진노가 풀리어 유배로 끝났다. 이 일로 정극인은 태학생회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尼姑吟奇古阜郡伯〉는 고생하는 尼姑에게 연민을 보내며 고부의 원님에게 郡伯을 돌봐주기를 부탁하는 편지와 같은 시이다. 본래 정극인은 척부의 인물이었으나 여승의 딱한 사정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표출시킨 시가 〈尼姑吟奇古阜郡伯〉이다. 〈尼姑吟奇古阜郡伯〉에서 정극인은 함께 살면서 사랑으로 어울리며 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그리움의 시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리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움의 대상으로는 먼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벗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다. 정극인은 고향을 떠나 관직생활에 몸담았을 때 고향을 그리움의 정을 읊고 있는 시이다.

寂寞覺堂日又長	적막한 횡당에 하루 해가 또 긴데
眼穿南望我心傷	눈이 뚫어지도록 남쪽을 바라보니 나의 마음 상하네
若爲縮地詩山郡	시산국까지 축지법을 쓰려 하나
母岳崑崙隔兩鄉	높고 높은 모악산이 두 고을을 가로 막고 있네

〈憶古縣〉

이 시는 고향을 생각하는 시이다. 병자년(1456, 세조2)에 칠석에 전주에 도입하면서 쓴 시이다. 정극인은 어린 시절을 두모포에서 보냈으며 열일곱인 1417년에 선조의 고향인 영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학문을 닦게 되었다는 것은 행장의 기록이다. 세종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태학관에 유학하고 여러 선비들과 교유했다. 정극인은 태인의 구고 임씨와 결혼했다. 이로 인하여 태인에서 살게 되었고, 또한 태인의 자연과 벗하고 살면서 초정인 불우현을 지었다. 여기서 고향동은 태인의 고향동을 말함이다. 태인의 고향동에 살면서 1475년 향리(武城里)에서 洞中鄉飲酒禮라는 친목계를 만들어 무성리의 사람들이 이에 참여하여 서로 쟁송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또 예의를 숭상하는 미풍양속을 길렀는데 이 친목계가 泰仁古賢洞鄉約의 시초¹⁴⁾이다.

정극인은 태인의 고향동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런 고향을 추억하면서 적

13) 불우현은 당시에 사간원 정언으로 있었다.

14) 유옥례, 『丁克仁의 不憂軒曲 研究』, 『古詩歌 研究』 10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2, 185쪽.

막한 시간에 하루해가 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지만 어떤 때의 시간은 보내고 싶어도 가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정극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눈이 뚫어지도록 남쪽을 바라보는 것은 고현인데 마음은 상하고 있다고 한다.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서 보려고 하지만 높고 높은 모악산이 두 고을을 가로 막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5 감격의 시

정극인이 관직에서 물러나 임금의 은혜에 감격한 것을 시로써 나타내고 있다.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읊고 있다. 그는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 임금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다.

致仕行吟到華門	벼슬에서 물러나 읊조리며 사립문에 이르러
掛冠還倚不憂軒	관을 걸어 놓고 다시 불우현에 기대었네
湖南郡縣知多少	호남의 군현이 얼마나 되던가
五十三分一正言	순셋 된 정언 한 사람뿐이네
歸去來思斷斷臣	돌아가길 생각하는 성실한 신하여
澗邊絲柳眼初均	시냇가의 실버들에 눈이 처음 고르네
洋洋泌水泰山麓	태산 산기슭에 양양한 필수가 흐르고
皎皎白駒空谷春	빈 골짜기의 봄에 희디 흰 백구가 있으리 ¹⁵⁾
鄉曲古談當賤子	향리에서는 미천한 사람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諫垣清興屬高人	사간원의 청아한 흥취는 높은 사람에게 부쳤네
御爐香惹衣冠在	임금의 화롯불 향기만 의관에 남아있고
身上都無一點塵	이 몸엔 모두 한 점 티끌이 없어야
泰山長谷獨孤臣	태산 장곡에 홀로 외로운 신하여

15) 빈 골짜기의 봄에 희디 흰 백구가 있으리라는 『시경』에 현자의 귀가를 만류하려는 뜻으로 白駒 즉 흰 망아지를 붙들어매어 가지 못하게 함을 노래한 구절이 있다. (『詩經』, 小雅 白駒)

天日無私雨露均	임금의 은혜는 사정이 없어 우로가 고루 미치네
隣叟提壺開舊面	이웃 노인 술항아리 잡고 옛 얼굴을 열고
庭梅傲雪迎新春	정원의 매화는 눈 속에서 신춘을 맞네
閑邪陳善俟君子	사특함을 막고 선을 열기는 군자를 기다리고
告老引年宜野人	늙어 벼슬에서 물러나 노년을 보내니 야인에 마땅하네
只有身心衰未了	다만 몸과 마음이 아직 쇠하지 않았으니
縮年還欲踐紅塵	나이를 줄여 다시금 홍진을 밟고 싶어라

〈致仕吟¹⁶⁾〉

이 시의 “致仕行吟到華門 掛冠還倚不憂軒”에서는 벼슬에서 물러난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湖南郡縣知多少 五十三分一正言”에서는 다만 몸과 마음은 쇠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시금 홍진을 밟고 싶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아직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시에 대해서는 당시에 박건, 김윤, 박휘겸이 모두 12수의 차운시를 지었는데, 이는 『불우현집』에 실린 타인의 시 34수 가운데 3분의 1 남짓한 분량이 되고 하다.

정극인이 관직에서 물러나 청산에 백운이 차지하고 있음을 노래한다. 이 또한 임금의 은혜에 감격한 것을 시로써 나타내고 있다.

長占青山又白雲	청산에 또 백운을 길이 차지하니
不憂軒上事天君	불우현 위에서 마음을 섬기네
飢餐渴飲閑中味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한중의 재미
明月清風可與云	명월 청풍이 함께 하리라

〈不憂軒吟〉

16) 예종1년(1469 기축년) 8월에 태인 훈도로서 정언에 임명되었는데, 12월 24일에 나이가 장차 일흔이 된다는 이유로 미리 사직소를 올리고, 성종1년(1470 경인년) 1월 6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 당시에 조정에서 정언을 택할 때 임명함이 상세하고 주밀했는데 호남 지방에서 선발된 이는 정극인 혼자였다. 이는 만족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 시는 청산 백운 가운데 한가롭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읊었는데, 이 시에서 정극인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정극인의 의식이 물욕에서 벗어나 온전한 진락(眞樂)의 세계에 도달했음을 넉넉히 느낄 수 있다. 이 시에 대해서 박건¹⁷⁾이 차운한 시가 있다.

誰將富貴等浮雲	누가 부귀를 뜬구름처럼 보랴
林下高風只見君	다만 그대에게서 임하의 높은 풍모를 보겠네
十畝桑陰會有約	십 묘의 상음에 일찍이 약속이 있더니
虛名挽我不如云	허명이 나를 당겨 말한 대로 되지 않았네

3. 결론

정극인은 조선조에 활동했던 인물로 가사인 〈상춘곡〉, 〈불우헌가〉, 〈불우헌곡〉을 지은 시인이다. 정극인의 삶은 수기와 자질에 비해서 벼슬도 높지 않았고 환로생활도 길지도 않았으며 처사요 야인의 삶을 살았다. 그가 남긴 한시는 『불우헌집』에 전해지고 있다. 그의 문집인 『불우헌집』에 전하고 있는 한시는 운문인 한시가 약 57편 실려 있고 대체로 절구와 율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극인의 한시에 드러난 미학은 관계의 미학이다. 정극인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들을 시 속에서 미학적으로 표출시켰다. 관계의 미학에는 훈계의 시, 송별의 시 어울림의 시, 그리움의 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중 송별의 시와 훈계의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극인의 시는 예술과 자연 그리고 사랑이 조화롭게 나타난다. 내용은

깊이가 있고 아름다우며 뜻이 잘 전달되고 있다. 시 속에는 상징과 함축보다는 표현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공자가 仁은 사랑이라 했듯이 그는 살면서, 태인의 주민들을 사랑했으며, 교우와의 관계에서는 조화와 어울림으로 도덕적 완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정극인의 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정신적인 예술행위로까지 확대되어 가장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 삶과 경험 그리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심오하게 형성하였다. 정극인의 시는 삶과 경험을 나타냈는데, 나이가 든 후에는 더욱더 심오하고 진실한 언어가 한층 돋보인다. 그는 정신의 진리성을 가장 심오하게 시를 통해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不憂軒集
靈光郡誌編纂委員會, 靈光郡誌.
靈光丁氏族譜.
玉堂골鄉土文化史料緝.
井邑文化院, 新編井邑人物誌.
鄉土文化社, 井州市誌.
姜銓燮, 『韓國古典文學研究』, 大王社, 1882.
金東旭,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1976.

정민, 『한시미학산책』, 서울출판사, 2003.
헤겔, 두행숙 옮김, 『헤겔미학』 I, 나남출판, 2001.
톨스토이, 이철 옮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2005.
전경목, 「태인고현향약과 정극인」, 『태산선비문화학술대회요지서』, 우리문화진흥회, 2000.
유옥례, 「정극인의 불우헌곡 연구」, 『고시가연구』 10집, 2002.

17) 박건의 지는 자계(子啓)이며 仲孫의 아들이다. 생원으로 계유년(1453, 단종1년) 을과로 급제했으며, 관직은 찬성이며, 정국공신에 들었으며 密原君에 봉해졌다.

유육례, 「정극인의 증시 연구」, 『고시가연구』 14집, 2004.

유육례, 「정극인의 국문시가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Aesthetics of Chinese Poetry by Jeong Geuk-In

Yu, Yuk-rye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Jeong Geuk-In is a poet at the beginning of Joseon Period. A collection of his Chinese poems titled < Bul-woo-hun-jib> includes about 57 Chinese poems of quatrain and verse. His Chinese poetry shows aesthetic of relations. His poetry songs admonition, farewell, harmony and longing. Among them, poetry of farewell and admonition have greater gravity in his poetry.

Jeong Geuk-In songs love of neighbor and appreciation of king and country in his poetry. He practices the saying by Confucius himself. He loves people and friends in his community.

His poetry reveals real expressions as they are rather than symbols and implication. What he is to pursue is expressed in his poetry. He intends to reveal his thoughts and a view of life in his poetry. Mr. Jeong shows truth of spirit most seriously in this poetry.

Key words: Jeong, Geuk-In, Aesthetics, poetry of admonition, poetry of farewell, poetry of harmony and poetry of longing